

PREVIEW

변상환, 한황수 Byun Sanghwan, Han hwangsu

2018. 3. 10 토 - 3. 30 금

황귀영 Hwang Guiyoung

2018. 4. 6 금 - 4. 26 목

PT & Critic : 2016Reunion

〈환상적인 부수물〉 *Fantastic Remnant*

오프닝 리셉션 2018. 3. 10 토 18시

PT & Critic 2018. 3. 17 토 16시 패널 : 안소연 비평가, 장준호 작가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2016년도 PT&Critic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던 변상환, 한황수 작가의 2년 후 작업을 다시 주목해보는 PT&Critic : REUNION전을 2018년도 첫 전시로서 개최한다. 가공된 이미지를 다시 활용하여 자신의 세계로서 재구성 하는 이들의 작업은 비평가 안소연과 작가 장준호를 패널로 한 비공개, 공개 크리틱과 함께 소개된다.

작가노트

변상환

〈Maxlife-무지개〉가 가장 최근이었다. 플로랄폼으로 덩어리를 만들고 방수액을 발라주는 초록 작업. 마른 땅 위에 무지개를 보았으니 더 이상의 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이름도 매력적인 오아시스-플로랄폼은 당위가 사라졌다. 남은 건 방수액. 아니 '방수'도 사족. 초록안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초록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남산에 올랐던 어느 외국인의 일화를 통해 '인지'했던 그 지점에서 질문해볼까 한다. "이 초록이 보이시나요?"

〈오감도(鳥 까마귀 오, 瞰 굽어봄 감, 圖 그림 도)〉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땀방울들은 국내 페인트 제조사 KCC, 삼화, 노루, 제비-각 회사의 초록 방수액이다. 그러니까 초록 유닛이 모여 이루어진 커다란 원 그림은 총 4개의 각기 다른 색 레이어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자세히 보면- 보인다. 까마귀가 날아서 굽어본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 초록 점 하나는 까마귀 눈에 비친 초록 옥상 하나다. 물론 초록 옥상이 하나일 리 만무하니 이렇게 많은 점들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둥근 그림 〈오감도〉는 풍경화이다. 그리고 보면 색진검사를 받을 때 우리도 부감의 시선을 경험한다. 테이블 위에 색신 책이 놓이고 땀방울이 그림을 굽어다 본다.

〈비미르무기〉

시력 테스트 표를 기본값으로 한다. 모니터에 벡터(vector) 시력테스트 이미지를 지도처럼 띄워 놓는다. 위도, 경도를 가로지르며 포착한 지점을 자유롭게 줌, 줌아웃 하면서 모니터에 맺히는 이미지를 크롭(cropping)한다

한황수

영화 〈딩게르크〉는 세계 2차대전 초기 덩게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 영국군, 프랑스군 등 34만여 명이 바다를 건너 탈출해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언더 워터〉는 서핑을 즐기다 해변에서 200미터 떨어진 암초에 갇혀 포식자인 상어로부터 탈출해 해변으로 돌아가야 하는 주인공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터널 선샤인〉은 헤어질 연인과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사랑의 흔적들을 찾게되고 기억의 미로에서 그 흔적들을 지키며 탈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영화들은 역사적, 지역적, 감정적 요인 등에 의한 '탈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줄거리를 펼친 영화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영화 속 사건들을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게 되었다.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탈출'이라는 키워드는 좋지만 한 뉘앙스는 아니다. 끝없이 고립과 탈출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영화의 리닝타임내에 결말이 만들어낸 의미들을 반복시키고 중첩시키는 이미지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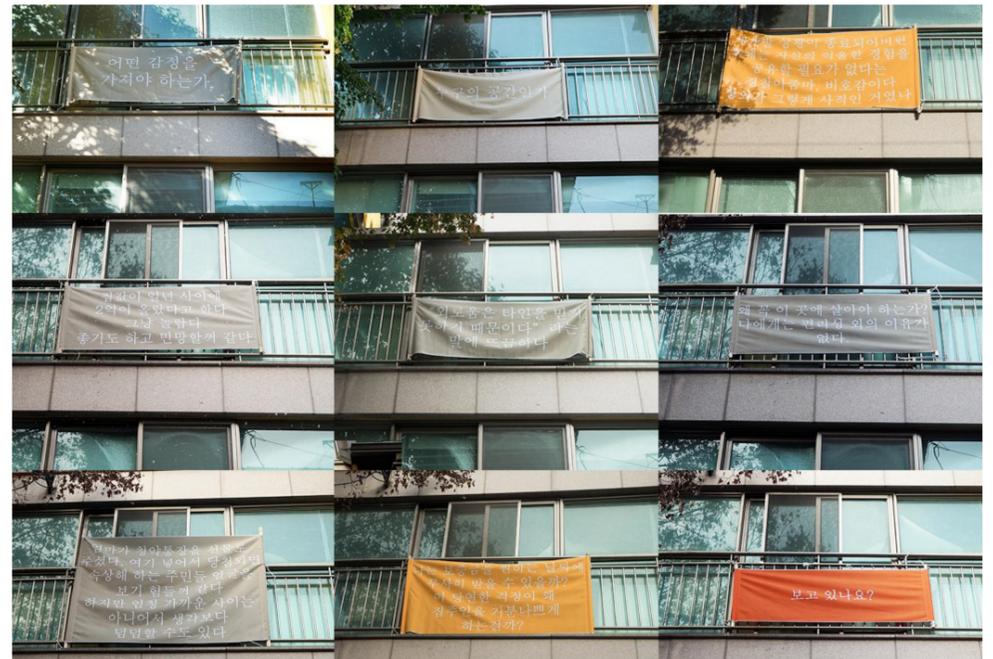
영화 〈딩게르크〉, 〈언더 워터〉의 주 배경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배경을 중심으로 영화의 화면들을 서로 중첩시키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섞는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개인은 서로 다르지만 연대감을 형성한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병이 될 수 있고 조용히 제 삶을 살던 해파리가 될 수도 있다. 각자의 영화에서 단역 같은 개인일 뿐이지만 옴니버스로 영기고 섞인 이 이미지 작업 내에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나치던 컷들이 합쳐지면서 큰 틀 안에서 각자의 빈자리를 찾아 끼어들어가게 된다.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미확인 표식들〉

Non-negotiable Relationships: Unidentified Signs in Gongdeok-dong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없습니다.

아티스트 토크 추후공지



전시소개

황귀영 작가는 공적으로 가시화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들여다보고 미디어,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번 전시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에서는 한국 사회가 흔히 겪는 재개발·재건축 상황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공적 단체와 개인의 차이와 연결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작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덕동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태도를 살핀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제 3자인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서 겪는 생각과 고민을 텍스트화하여 자신의 거주하는 집 배란다에 걸거나, 혹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치 않은 화환을 보내는 등 견고하게 이분화된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기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공적 입장을 가진 단체와 개인이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협상을 할 때에는 구도가 선행한다. 임금 협상에 사측과 노조라는 구도가, 외교 협상에 국가와 국가라는 구도가 선행하는 것처럼, 협상의 구도는 주제를 결정짓기도 한다. 그런데 주어진 구도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 걸까. 전시되는 프로젝트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수상한 표식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가시화되지 않는 위치와 관계를 찾고 말 걸기를 시도하는 작업이다. 시작은 내 자신이다. 재건축 인가 구역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나는 지리적으로는 지역의 '내부자'이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경합 중인 상황에는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자'다. 조합원도 반대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 섬 같은 위치는 주변 상황을 모르기에는 가까운 거리인 동시에 관찰자 적인 입장이다.

도시개발 논의에서 잘 가시화되지 않는 이러한 위치에서 나는 지역의 의사소통 체계를 지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위치와 관계들을 찾아본다. 또한 집단화되고 관례화된 관계에서 주고 받는 공적인 형식들(건설사의 화환, 현수막 등)을 차용하여 개인의 발화 장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장치로 전유할 수 있는지 실험 한다. 형식과 내용, 송신자와 수신자의 조합이 어긋난 이러한 시각장치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낯선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전시는 재개발 상황에서 익숙한 형식들로 제시되는 집단의 목소리 외에 개인의 목소리가 공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 나아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그려지는 도시 갈등에서 다양한 주체의 위치와 소통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한다.

〈공덕동 뉴스〉와 〈네트워크 지도 그리기〉는 두 채널로 함께 제시된다. 〈공덕동 뉴스〉는 특정 지역을 투자의 관점에서 재현하는 방송, 사회적 관점에서 재현하는 sns클럽,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아카이브를 조합하여 재개발을 둘러싼 의사소통의 형식들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지도 그리기〉는 이러한 영상에 리듬을 맞춰 관계망을 지도로 나타낸다.

본인의 집 앞에 설치되는 장소 특정적 현수막은 광고나 공람용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이 있지만 개인의 감상을 기록한다. 〈미확인 표식들 1〉은 재개발을 겪은 이웃 주민과의 대화, 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모순되는 입장, 상황, 고민 등이 시연되는 현수막들로 지속적으로 교체된다.

〈미확인 표식들 1〉이 일방적 메시지 전달, 방벽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미확인 표식들 2〉는 그보다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가정되는 '화환'의 형식을 차용한다. 건설사에서 축하의 의미로 보낸 화환을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적합한 수신자 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처럼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를 수신자에게 인사, 축하, 위로 등의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꽃바구니와 함께 보낸다.



이미혜 개인전 <국민취향>

Meehye Lee solo exhibition <Our Own Tastes>
2017. 12. 23 토 - 2018. 1. 18 목

오프닝 리셉션 2017년 12월 23일 ①
아티스트 토크 2018년 1월 13일 ②

<국민취향>은 월링앤딜링에 방문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전시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이는 전시가 최근의 소비문화라는 '핫한' 소재를 다루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미혜 작가가 공통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깜빡이는 LED 시계는 모니터 속에서 다양한 공간을 보여주며 깜빡이고, 예쁜 소품으로서의 키포크 잡지는 작가가 작품으로써 만든 <국민취향> 잡지의 형식으로 차용되었다. 그리고 정밀하게 측정된 실제크기의 이미지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국민아이템들의 만족감을 체험해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사실 나는 이런 국민아이템들을 직접 구입해 본 경험은 없었기에, 작가의 정교하고 재치있는 디스플레이의 형식에 보다 매료되었다. (글. 맹성규 인턴)



장준호 개인전 <조율하는 마음대로>

Jang Junho solo exhibition <Tune it your way>
2017. 11. 24 금 - 2017. 12. 14 목

오프닝 리셉션 2017년 11월 24일 ①
아티스트 토크 2018년 12월 7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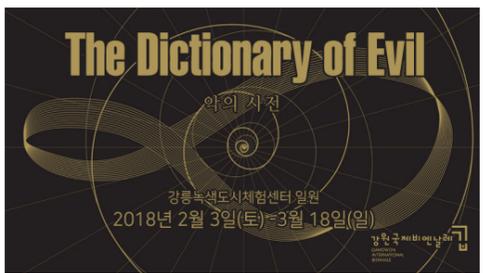
장준호 작가는 진지하면서 때로는 가벼운 장난 식의 유머에 욕심을 내기도 했다. 양면 같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같았다. 말 그대로 '진지'라며 행복하게 놀기를 평소에도, 작업태도에서도 보여주었다. 견고한 재료가 깎이고 다듬어진, 송고하기도 한 그 조각물이라는 것을 놀이 기구로 내놓았으니 말이다. 장준호 작가는 놀이에서의 규칙 혹은 달성할 목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방법은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그 놀이들을 시작하면서 관객은 어떻게 옮기고 모양을 내고 변형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마치 유아용 장난감처럼.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스펙트럼은 넓었으며 어떤 나이도 즐길 수 있는 난이도였고 아주 나이스했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SHORT-CUT NEWS

월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홍승혜 작가는 청주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린 소장품 기획전 <2018 우민보고 同床異夢 (동상이몽)>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정형 작가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 2018 강원국제비엔날레 <악의 사전 The Dictionary of Evil>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2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오인환, 홍순명 작가는 남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소장품 기획전 <망각에 부치는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노은주 작가는 갤러리 기체에서 열린 단체전 <IMMERSION VS BALANC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홍순명 작가는 필리핀 마닐라의 1335 MABINI에서 개인전 <Ordinary Monument>를 가졌습니다. 2018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유영진 작가는 송은아트큐브에서 개인전 <we are no here>를 가집니다.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병구 작가는 2018년도 인천아트플랫폼 9기 입주예술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혁 작가는 가나아트센터 부산에서 열리는 <회화의 길잡이> 기획전에 참여합니다.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추미림 작가는 하나은행 컬처뱅크 (방배 서래점) 센터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9일부터 6개월간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준호 작가는 이정형 작가와 함께 쓰던 작업실에서 나와 통의동 보안여관 지하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빈 자리에는 최병석 작가가 차지하였고 이정형 작가는 이에 '작업실이 깔끔해지겠다'며 반겼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POP UP ITEM



박용석 도록

전병구 도록



장준호 도록

강석호 도록



이미혜 도록

스페이스 월링앤딜링에서는 전시별 도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전병구, 박용석, 장준호 작가의 전시 도록이 인쇄되었습니다. 또한 이미혜 작가의 개인전에서 제작된 책자도 판매합니다. 2018년 1월에는 2012년 개인전을 가졌던 강석호 작가의 새로운 버전의 도록이 인쇄되었습니다. 구입은 스페이스 월링앤딜링에서 가능합니다. (각 3,000원, 이미혜 <국민취향> 20,000원)

W&D NEWS

김인선 디렉터는 2017년 후반의 정신없었던 일정을 마무리 하며 2018년을 여유롭게 준비하기로 결심, 2월까지 휴식기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시만 없을 뿐 여전히 바쁘다고 토로하였다.

최정윤 협력 큐레이터는 "3월이야. 추위가 풀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아." 라고 사근사근 혼잣말을 하였다.



평소에 고래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았던 **한황수** 코디는 명절에 포항에서 온 고래고기를 먹어보게 되었다. 다양한 부위별로 먹고 나서 그는 '고수'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한다.

월링앤딜링 새로운 식구가 된 **맹성규** 인턴은 논문과 전시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한다.



SPACE: WILLING & DEALING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전화 : 02 - 797 - 7893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스페이스 월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맹성규
감수 : 김인선
발행일 : 2018년 3월 10일